

Three Cases of Submucous Cleft Palate with Hypernasality Treated with Double Opposing Z-plasty

최홍식, 이승수, 김성국, 김태만, 김현준*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연세의대 이비인후과학

점막하 구개열(submucous cleft palate)은 특징적인 임상적 해부학적 기형을 나타내는데 이분 구개수(bifid uvula), 근육의 분리(muscular diastasis), 경구개 후연의 절흔(frunk notching of the posterior hard palate)등이다. 결국 이러한 기형을 교정하지 않으면 과비음과 공명장애로 인한 조음장애는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인상에 나쁜 영향을 주게되어 개인의 인성 형성의 장애와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구개열의 수술 방법과 수술 시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개 성형술 후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과대비성(hypernasality) 호전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무작위 표본 연구가 거의 없다.

구개열이 있는 소아에서 구개 치료의 두가지 중요한 목표는 정상적인 조음형성과 정상적인 안면중양의 성장에 있다. 상기 두가지 목표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Double opposing Z-plasty를 시행한후 과대비성을 동반한 구개파열의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비강내시경검사(fiberoptic nasopharyngeal endoscope), 비음치(nasalance score) 측정, 그리고 보호자의 술 후 만족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증례를 통한 과대비성을 동반한 점막하 구개열의 환자에 Double opposing Z-plasty를 통한 술후 평가는 과대비성의 현격한 개선과 높은 술후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구개열 파열환자의 이비인후과적 치료법으로의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